BARUN EDUCATION
READING & DISCUSSION

새로운 질문 10

생각을 넓히는 읽기

익숙한 답을 넘어, 새로운 질문으로



사회 · 도덕 · 문학을 함께 읽는 사고력 교재

깊이 읽는 글 10편 + 다른 관점 10편 + 토론 질문 30개

중3 심화 · 고등 입문 | 읽기 · 쓰기 · 말하기

바른에듀케이션

이름 _____ 학습 시작일 _____

학습용 창작 글과 출처를 확인한 실제 사례를 구분하여 수록했습니다.
학교 공식 기출·예상문항집이 아닌 독립형 읽기 교재입니다.

읽고, 의심하고, 다시 말하기

기존 예상문항의 해설 없이도 읽을 수 있는 독립형 교재입니다.

회차	주제	읽기 글	쪽
01	선의와 결과	좋은 마음이면 충분할까	3-5
02	다수결과 소수 의견	스무 명의 찬성, 다섯 명의 이유	6-8
03	처벌과 회복	벌이 끝나면 문제도 끝날까	9-11
04	기억과 역사	같은 날을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들	12-14
05	정상과 낙인	보통이라는 말의 경계	15-17
06	노동과 존중	보이지 않는 일이 멈춘 하루	18-20
07	소비와 행복	갖고 싶은 것의 다음 페이지	21-23
08	과학과 불확실성	아직 모른다는 말의 힘	24-26
09	예술과 해석	작품의 주인은 누구일까	27-29
10	침묵과 용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	30-32

한 주제를 읽는 세 단계

첫째, 본문을 읽으며 중심 주장과 근거를 구분합니다. 둘째, 다른 관점의 글이 무엇을 보완하거나 반박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질문에 자신의 판단을 적고 근거를 들어 말합니다. 처음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어떤 문장이나 사례 때문인지 설명해 보세요.

수업 운영 제안

읽기 10분 → 관점 비교 8분 → 질문 토론 12분 → 재정리 5분을 권합니다. 정답을 빨리 고르기보다 결론의 적용 조건과 한계를 말하게 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형편이나 피해 경험을 공개할 필요 없이 가상 사례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본문·다른 관점·창작 문장은 이 교재를 위해 작성했습니다. 실제 사례는 [S1]-[S4]로 표시했습니다. 지도 참고는 33-35쪽, 출처 안내는 36쪽에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면 충분할까

읽기 글 · 학습용 창작 | 의도 · 예측 가능성 · 책임

상대를 돕고 싶었던 마음은, 상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동아리 학생들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책을 선물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감동받은 책을 모으고, 예쁜 포장지에 응원의 말을 적었다. 그런데 책을 받은 한 어르신은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어르신은 이미 같은 책을 갖고 있었다. 학생들은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과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한 서운함을 함께 느꼈다. 이때 "마음이 좋았으니 좋은 행동이다"라는 평가와 "필요를 묻지 않았으니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평가가 맞선다. 두 평가는 같은 행동의 서로 다른 부분을 보고 있다.

의도는 행동을 시작하게 한 목적이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책을 준비한 사람과 관심을 얻기 위해 선물을 내세운 사람은 겉으로 같은 일을 해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의도를 살피면 결과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성실함과 배려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과 돕고 싶은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의도를 주장하는 말만으로 행동 전체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결과는 행동이 다른 사람과 주변 상황에 실제로 남긴 변화다. 선물을 받고 즐거워한 사람이 있는지, 필요 없는 물건을 처리하느라 부담을 느낀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결과만으로 모든 책임을 판단하면 운이 평가를 좌우할 수 있다.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했는데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는데 우연히 아무 피해도 없을 수 있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준비 과정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선의까지 모두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긴다. 행동하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확인할 수 있었는가? 글씨 크기나 필요한 책을 미리 묻는 일은 어렵지 않았을 수 있다. 반면 전달 뒤에 생길 모든 상황을 학생들이 알 수는 없다. 책임을 따질 때에는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와 사용할 수 있었던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결과를 알고 난 뒤에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야지"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공정한 평가는 행동 당시 가능한 판단과 나중에 얻은 지식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한다.

문제가 드러난 뒤의 태도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왜 불평하느냐"라고 답한다면, 도움의 중심은 어르신의 필요에서 학생의 자부심으로 옮겨 간다. 반대로 불편을 듣고 큰 글씨 책으로 바꾸거나 다음 활동 전에 희망을 묻는다면 실패한 선물은 더 나은 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책임은 잘못한 사람을 찾아 비난하는 일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미 일어난 부담을 줄이고,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일도 책임의 중요한 모습이다.

선의를 평가할 때 마음과 결과 중 하나를 지워 버릴 필요는 없다. 왜 행동했는지, 무엇을 미리 살폈는지,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뒤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차례로 물을 수 있다. 이 질문들은 도움을 주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좋은 마음이 상대의 삶에 도착하기까지 필요한 과정을 더 잘 보게 한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건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듣고, 내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도 받아들일 때 배려는 한 번의 행동을 넘어 관계가 된다.

모든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도울 수 있을까

앞의 글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어떤 조건을 새롭게 덧붙이는지 살펴보세요.

결과를 세심하게 따지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도움의 효과를 완벽하게 예측하라고 요구하면 사람들은 아예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 처음 봉사하는 학생에게 전문가와 같은 조사 능력을 기대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선물의 일부가 필요와 맞지 않았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경험이 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숫자나 즉각적인 반응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도움을 평가할 때에는 준비 수준과 경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했는지보다 상대의 말을 듣고 수정할 준비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일 수 있다. 다만 경험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확인 가능한 사실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선의를 존중하는 일은 비판을 금지하는 일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잘못과 고의적인 무시를 구분하는 일이다. 비판하는 사람도 행위자의 마음을 함부로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면 좋을지 설명해야 한다.

개념을 정확하게

의도

행동을 통해 이루려 했던 목적. 실제 결과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예측 가능성

행동 당시 가진 정보와 조건으로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의 정도.

사후 책임

결과가 드러난 뒤 피해를 줄이고 행동을 수정하려는 책임.

한 걸음 더 읽기

행동 전의 준비와 행동 후의 대응을 나누어 보자. 같은 실수라도 의견을 듣고 바꾼 경우와 선의를 내세워 거부한 경우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두 글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근거를 붙여 생각을 말하세요

이름 _____ 날짜 _____

질문 1

본문이 의도와 결과 어느 하나만으로 행동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이유를 각각 설명하시오. 책 선물 사례에서 추가로 확인할 정보도 하나 제시하시오.

질문 2

다른 관점의 글이 본문에 덧붙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 이 기준이 책임을 약하게 만드는지, 더 공정하게 만드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질문 3

친구를 돕기 위해 대신 발표 자료를 고쳤지만 친구가 자신의 생각이 지워졌다고 느낀 상황을 가정하자. 행동 전과 행동 후에 필요한 배려를 구분하여 제안하시오.

답변 점검 | 본문의 근거를 썼는가? · 다른 관점을 공정하게 다뤘는가? · 적용 조건을 밝혔는가?

스무 명의 찬성, 다섯 명의 이유

읽기 글 · 학습용 창작 | 절차 · 권리 · 숙의

표의 수는 결정을 내리는 방법이지만, 결정의 모든 이유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학급 스물다섯 명이 축제 공연을 정한다. 춤 공연에 스무 명, 연극에 다섯 명이 손을 들었다. 다수결로 춤이 정해지자 몇몇 학생은 이제 토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연극을 원했던 학생 중 한 명은 무대에서 춤추는 일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했고, 다른 학생은 의상비를 걱정했다. 처음의 질문은 무엇을 공연할 것인가였지만, 뒤늦게 나온 이유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었다. 표의 수만 보면 하나의 선택이 끝난 듯하지만, 실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 있었다.

다수결은 의견이 갈릴 때 공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모든 사람이 끝까지 동의해야 한다면 작은 일도 쉽게 멈출 수 있다. 한 사람에게 같은 수의 표를 주는 방식은 특정인의 지위나 목소리 크기가 결정을 독점하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의견이 사실상 옳다는 뜻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된 정보를 믿을 수도 있고, 질문 자체가 중요한 선택지를 빠뜨렸을 수도 있다. 다수결은 결정의 절차이지 그 결정에 관한 모든 진실을 알려 주는 장치는 아니다.

특히 무엇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간식의 종류를 정하는 일과 특정 학생에게 모욕적인 역할을 강요하는 일은 같지 않다. 취향이 다른 사람은 이번 선택에 양보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지만, 누군가의 존엄이나 안전을 침해하는 결정은 표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해지기 어렵다. 권리는 다수가 호의를 베풀 때만 얻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수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할 기본 조건을 구분해야 다수결도 신뢰를 얻는다.

소수의 의견을 듣는 것은 언제나 소수의 선택을 최종안으로 채택한다는 뜻이 아니다. 춤 공연을 유지하면서도 무대에 서지 않는 기획 역할을 만들거나 비용이 적은 의상을 택할 수 있다. 이처럼 반대 이유를 들으면 처음에는 둘 중 하나로 보였던 문제가 여러 부분으로 나뉜다. 공연 종류, 역할 배치, 비용 부담을 따로 논의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이유가 진지하게 검토되었다고 느낄 때 결정에 참여할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 의견 존중이 어떤 결정도 막을 수 있는 권한으로 바뀌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누군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자기 뜻만 고집하는 경우에도 모두가 계속 기다려야 할까? 의견을 들을 시간과 방법을 미리 정하고, 반대의 내용이 기본권의 문제인지 취향의 문제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모든 불만을 없애는 결정을 찾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설명하고 나중에 수정할 수 있는 조건을 남기는 일이다.

함께 결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드는 순간에만 참여한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질문을 할지 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유를 들으며, 결과를 점검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의 말은 결정을 늦추는 방해물일 때도 있지만 다수가 미처 보지 못한 문제를 알려 주는 단서일 수 있다. 따라서 좋은 회의는 찬성표를 많이 얻는 기술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 선택이 채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으며 참여할 수 있는지 끝까지 묻는 태도를 요구한다.

결정하지 못하는 회의도 누군가에게 부담이다

앞의 글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어떤 조건을 새롭게 덧붙이는지 살펴보세요.

모든 이유를 충분히 듣자는 원칙은 설득력 있지만, 현실의 공동체에는 마감과 자원의 한계가 있다. 회의를 반복할수록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만 남고 바쁜 사람의 의견은 오히려 사라질 수 있다. 소수의 반대가 계속되면 결정이 지연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충분한 논의와 무한한 논의는 다르다.

따라서 토론 기회를 보장하되 결정할 시점과 절차도 미리 합의할 필요가 있다. 다수가 선택한 안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권리가 보호되고 이의 제기 통로가 있다면 공동의 결정을 따라야 할 때가 있다. 다만 이 주장이 반대 의견을 빨리 입막음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정의 속도가 중요할수록 무엇을 놓쳤는지 기록하고, 시행 뒤에 실제 문제를 확인하여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결정은 토론의 길이만으로도, 결정의 빠르기만으로도 평가할 수 없다.

개념을 정확하게

절차적 정당성

발언·정보 접근·표결 등 결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정당성.

기본권의 보호

다수의 선호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보장해야 할 존엄·자유 등의 기본 조건.

숙의

서로 이유를 제시하고 검토하면서 자신의 판단도 수정할 수 있는 논의.

한 걸음 더 읽기

반대가 취향·비용·안전 중 무엇에 관한 것인지 나누어 읽어 보자. 반대 의견을 하나의 불만으로 묶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놓치게 된다.

두 글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근거를 붙여 생각을 말하세요

이름 _____ 날짜 _____

질문 1

본문의 공연 사례에서 표결 이후에도 남은 문제는 무엇인가? “공연 종류의 결정”과 “참여 조건의 결정”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질문 2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과 소수에게 모든 결정을 막을 권한을 주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두 글의 근거를 각각 활용하시오.

질문 3

학생회가 토론 마감 시간을 정하려 한다. 충분한 참여와 결정의 필요를 함께 보장하는 회의 원칙 세 가지를 제안하고 각각의 이유를 밝히시오.

답변 점검 | 본문의 근거를 썼는가? · 다른 관점을 공정하게 다뤘는가? · 적용 조건을 밝혔는가?

벌이 끝나면 문제도 끝날까

읽기 글 · 학습용 창작 | 비례성 · 피해 회복 · 재발 방지

잘못에 책임을 묻는 일과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갈라질까?

한 학생이 장난으로 친구의 공책을 숨겼다가 일부를 훼손했다. 공책에는 시험을 준비하며 정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 일정한 제재를 내렸고, 학생은 정해진 기간을 보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공책은 돌아오지 않았고, 교실에서 다시 비슷한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도 사라지지 않았다. 가해 학생은 벌을 받았으니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피해 학생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었다. 이 차이는 책임을 묻는 방법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언제나 같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처벌에는 잘못된 행동을 공동체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기능이 있다. 규칙을 어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은 규칙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 다만 제재는 행동의 심각성에 비례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변의 분노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무거운 벌을 내리거나, 친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긴다면 규칙 자체의 신뢰가 약해진다. 책임을 묻는 일에도 지켜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문제는 벌이 정해진 뒤에도 남는 손상이 있다는 점이다. 공책을 잃은 학생에게는 자료를 다시 마련하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무시당했다는 경험도 남을 수 있다. 이런 손상을 살피는 관점에서는 누가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뿐 아니라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묻는다. 훼손된 물건을 보상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복구하고, 다시 안전하게 생활할 조건을 마련하는 일은 제재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 처벌과 회복은 반드시 서로를 대신해야 하는 선택지가 아니다.

사과도 회복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사과했다는 사실만으로 회복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자신의 불이익을 줄이려고 정해진 말을 읽는 것과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 이해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은 다르다. 또한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거나 가해자를 직접 만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주변 사람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 화해를 재촉하면 피해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 회복을 위한 대화는 안전하고 자발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 만나지 않는 다른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재발을 막으려면 행동이 벌어진 환경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책을 숨기는 일을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지켜봤는지, 불편하다는 말을 해도 장난으로 넘기는 분위기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 그렇다고 환경의 영향을 설명하는 일이 행위자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동시에 같은 행동이 반복되기 쉬운 조건을 바꿀 수 있다. 공책을 훼손한 학생의 선택과 이를 가볍게 여긴 교실의 관행을 함께 살피면, 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예방의 과제가 드러난다.

정당한 해결은 제재의 크기를 정하는 일에서 멈추지 않는다. 잘못을 분명히 확인하고, 실제 손상을 줄이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다시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조건을 만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 때로는 이 과정들이 서로 긴장할 수 있다. 신속한 마무리를 원하는 사람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임의 완성을 가해자의 일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벌을 끝냈다는 말 이후에도 누구의 생활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이 해결을 이어 가는 출발점이다.

회복이라는 말이 책임을 흐릴 수도 있다

앞의 글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어떤 조건을 새롭게 덧붙이는지 살펴보세요.

대화와 회복을 강조하는 과정이 오히려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말을 잘하거나 영향력이 큰 사람이 자신의 사정을 앞세우고, 피해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보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대화의 분위기에 따라 책임이 크게 달라진다면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분명한 제재 기준은 이런 차이를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회복을 추구하더라도 사실 확인과 책임의 범위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피해자가 참여를 거부해도 그 선택을 존중하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정해진 벌만 내리면 충분하다는 생각도 경계해야 한다. 제재 기준을 지키는 일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필요를 듣는 일은 함께할 수 있다. 대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하고 참여자의 힘이 크게 다를 때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의 이름으로 성급한 용서나 관계의 복원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개념을 정확하게

비례성

잘못의 정도와 제재의 무게가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

피해 회복

행동 때문에 생긴 물질적·관계적 손상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을 되찾는 과정.

자발성

강요나 불이익의 위협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

한 걸음 더 읽기

이 글은 학교의 실제 징계 절차를 안내하는 자료가 아니라 책임의 의미를 탐구하는 가상 사례다. 제재·회복·예방이 각각 어떤 문제에 답하는지 나누어 읽자.

두 글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근거를 붙여 생각을 말하세요

이름 _____ 날짜 _____

질문 1

제재가 끝났는데도 공책 사건이 피해 학생에게 끝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시오. 제재와 회복의 역할을 각각 구분하시오.

질문 2

“사과를 받지 않으면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두 글에서 근거를 찾아 설명하시오.

질문 3

가상 사건을 해결할 원칙 세 가지를 제안하시오. 피해자의 의사, 행위자의 책임, 교실의 재발 방지 조건을 각각 포함하시오.

답변 점검 | 본문의 근거를 썼는가? · 다른 관점을 공정하게 다뤘는가? · 적용 조건을 밝혔는가?

같은 날을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들

읽기 글 · 학습용 창작 | 기억 · 기록 · 해석

다른 기억은 과거를 흐리는 방해물일까, 보이지 않던 과거로 들어가는 입구일까?

오래된 시장을 소개하는 전시를 준비하며 학생들이 주민들을 만났다. 한 상인은 시장에 지붕을 씌운 해를 최고의 시절로 기억했다. 비가 와도 장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주민은 같은 해를 골목의 하늘이 사라진 때라고 말했다. 그곳에서 놀던 아이였던 사람은 공사가 끝난 날보다 공사 때문에 돌아서 학교에 가던 길을 자세히 기억했다. 세 사람은 같은 일을 말하지만 무엇이 중요했는지는 달랐다. 어느 한 사람만 정확하고 나머지는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각자가 어떤 자리에서 그 일을 겪었는지 살펴야 한다.

기억은 지나간 일을 그대로 보관한 사진과 같지 않다.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했던 장면을 중심으로 경험을 이야기하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함께 떠올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기억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공식 문서에 남지 않은 불편과 기대, 관계의 변화는 개인의 기억에서 드러날 수 있다. 공사 완료 날짜는 행정 기록에 남아 있어도 그 공사로 가게를 쉬어야 했던 사람의 마음까지 같은 방식으로 적히지는 않는다. 기억은 기록이 놓친 삶의 부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기억을 존중한다는 말이 모든 사실 판단을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사가 어느 해에 끝났는지, 길이 얼마나 막혔는지처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당시 사진과 문서, 여러 증언을 비교할 수 있다. 날짜가 다르다면 먼저 기억의 차이가 생긴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 첫 공사가 시작된 때와 전체 공사가 마무리된 때를 서로 다르게 기준 삼았을 수도 있다. 차이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질문의 대상과 표현의 의미가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역사를 서술하는 일에는 자료를 고르고 연결하는 판단이 들어간다. 시장의 발전을 보여 주려는 전시와 주민의 생활 변화를 보여 주려는 전시는 같은 사진도 다르게 배열할 수 있다. 무엇을 중심에 두는지에 따라 관람객이 이해하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전시를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이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어떤 자료를 왜 선택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실을 수는 없지만, 선택하지 않은 목소리가 계속 같은 집단의 것이라면 그 기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전시판에 “모두가 반긴 새 지붕”이라고 쓰려다가 문장을 바꾸었다. 대신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상인의 말과 하늘을 보기 어려워졌다는 주민의 경험을 함께 소개했다. 공사 연도는 확인한 기록에 따라 적고, 개인의 평가에는 그 사람이 누구였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덧붙였다. 이렇게 하면 전시는 하나의 결론을 빠르게 전달하기보다 방문객이 변화의 여러 측면을 생각하게 한다. 차이를 그대로 늘어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왜 같은 변화가 다른 의미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과거를 이해하려면 정확한 사실과 다양한 경험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사실 확인 없는 존중은 잘못된 이야기를 그대로 남길 수 있고, 개인의 경험을 지운 정확성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빈 연표로 만들 수 있다. 좋은 질문은 어느 한 기억을 이기게 하는 데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아직 불확실한지, 누구의 경험이 남았고 누구의 경험이 빠졌는지를 드러낸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앞으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들을 것인지와도 연결되어 있다.

많은 목소리보다 먼저 필요한 확인

앞의 글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어떤 조건을 새롭게 덧붙이는지 살펴보세요.

다양한 기억을 함께 보여 주는 전시는 풍부하지만 관람객이 사실과 감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혼란을 줄 수 있다. 근거가 충분한 설명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단지 서로 다른 목소리라는 이유로 같은 무게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묻는 문제와 그 사건을 어떻게 느꼈는지를 묻는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자료의 신뢰도를 검토하고 불확실한 부분을 표시하는 편집자의 책임이 필요하다. 소수의 기억이라고 언제나 정확한 것도, 공식 기록이라고 언제나 완전한 것도 아니다. 서로 충돌할 때에는 작성 시점과 목적, 직접 경험한 범위 등을 비교해야 한다. 다만 확인의 기준이 문서를 많이 남길 수 있었던 사람에게만 유리하지 않은지도 살펴야 한다.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 확인과 다양한 목소리의 존중은 서로를 막는 원칙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원칙이다.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

개인이 경험한 과거를 현재 떠올리고 이야기하는 방식. 사실과 감정·의미가 함께 나타난다.

기록

특정 시점에 남긴 문서·사진·물건 등의 흔적. 작성 목적과 보존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해석

자료를 연결하여 사건의 의미와 관계를 설명하는 일. 근거와 선택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한 걸음 더 읽기

실제 자료: 미국 의회도서관과 스미스소니언의 민권운동 구술사 프로젝트는 운동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수집·공개한다. 개인의 경험이 역사 자료가 되는 사례다. [S1] 위 시장 이야기는 이 교재의 창작이며, 해당 인터뷰를 재현한 것이 아니다.

두 글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근거를 붙여 생각을 말하세요

이름 _____ 날짜 _____

질문 1

시장 지붕 공사에 대한 세 사람의 기억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오. 확인해야 할 사실과 존중해야 할 평가를 각각 하나씩 구분하시오.

질문 2

서로 충돌하는 기록과 기억을 만났을 때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하는가? 두 글을 바탕으로 확인 기준 세 가지를 제시하시오.

질문 3

전시 제목 “모두가 반긴 새 지붕”을 다른 제목으로 바꾸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신의 제목이 새롭게 강조하는 점과 여전히 담지 못하는 점을 모두 말하시오.

답변 점검 | 본문의 근거를 썼는가? · 다른 관점을 공정하게 다뤘는가? · 적용 조건을 밝혔는가?

보통이라는 말의 경계

읽기 글 · 학습용 창작 | 평균 · 기준 · 낙인

자주 보이는 모습과 바람직한 모습은 언제부터 같은 뜻이 되었을까?

새 학기가 시작되자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게 했다. 한 학생은 사람들 앞에서 바로 말하는 대신 생각을 정리한 뒤 글로 표현하는 편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모둠 활동에서 말이 적다는 이유로 친구들은 그를 의욕이 없는 학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후 그가 준비해 온 자료도 다른 학생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발표 방식의 차이였던 것이 어느 순간 성격과 능력 전체에 대한 판단으로 커졌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붙인 말이 오히려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람과 사물을 분류한다. 비슷한 특징을 묶으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학생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지원을 마련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류는 일부 특징을 중심으로 만든 도구이지 한 사람의 모든 모습을 담는 설명은 아니다. 말수가 적다는 관찰에서 협력을 싫어한다는 결론으로 넘어가려면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관찰한 행동과 그 행동에 붙인 해석이 같은 것처럼 취급될 때 판단은 쉽게 굳어진다.

보통이라는 말에도 여러 뜻이 섞여 있다. 많은 사람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뜻일 때도 있고, 문제가 없거나 바람직하다는 뜻일 때도 있다. 하지만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이 서둘러 읽는다고 천천히 읽는 방식이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니며, 흔하지 않은 능력이 공동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흔한 행동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바꿔야 한다. 얼마나 흔한지를 묻는 질문과 어떤 기준에서 바람직한지를 묻는 질문은 구분되어야 한다.

낙인은 어떤 특징을 부정적인 표지로 삼아 사람 전체를 평가하고 관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번 성실하지 않은 학생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노력한 행동도 예외로 넘겨 버리기 쉽다. 새로운 자료가 들어와도 기존 판단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그 학생은 기회를 덜 얻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여 참여를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낙인을 경험한 사람이 반드시 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반응은 관계와 지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모든 기준과 이름을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글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파악하는 기준은 필요한 도움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이 지원을 여는지, 기회를 닫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또한 현재의 어려움을 변하지 않는 본성처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발표가 서툴다는 평가에는 어떤 상황에서 관찰했는지, 다른 표현 방식에서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다음에는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가 함께 담겨야 한다. 설명은 학생을 고정하기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다시 처음의 모둠으로 돌아가 보자. 학생의 준비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글로 정리하는 역할과 말로 발표하는 역할을 번갈아 맡겨 보면 처음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모든 학생이 똑같이 잘한다는 주장이 아니다. 한 번의 행동과 하나의 이름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겠다는 태도다. 타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좋은 말을 붙여 주는 데만 있지 않다. 내가 만든 분류가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판단을 바꿀 근거가 나타났을 때 기꺼이 바꿀 수 있는지를 묻는 데 있다.

분류하지 않으면 필요한 도움도 놓친다

앞의 글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어떤 조건을 새롭게 덧붙이는지 살펴보세요.

낙인을 피하려고 모든 차이를 개인의 다양한 모습이라고만 부르면 구체적인 어려움을 발견하기 힘들 수 있다. 일정한 기준으로 관찰하고 기록해야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시간을 더 주거나 적절한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같은 학생을 두고 사람마다 다른 인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공개된 기준을 사용하는 편이 더 공정할 때도 있다.

문제는 분류 자체보다 분류를 쓰는 목적과 수정할 수 있는 방식에 있다. 기준이 무엇을 측정하고 무엇을 측정하지 못하는지 밝히고, 결과를 설명할 때 한계를 함께 알려야 한다. 필요한 지원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학생의 사정을 알 필요는 없다. 또한 예전에 받은 평가가 지금의 기회까지 자동으로 제한하지 않게 해야 한다. 낙인을 막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숨기거나, 지원한다는 이유로 개인을 하나의 특징으로 고정하는 두 극단을 모두 피해야 한다. 좋은 기준은 사람을 판정하는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다음 지원을 찾는 첫 질문이 될 수 있다.

개념을 정확하게

통계적 보통
집단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상태. 도덕적으로 옳거나 우수하다는 뜻과 다르다.

낙인
특정한 특징을 부정적 표지로 삼아 사람 전체를 판단하고 관계나 기회를 제한하는 것.

수정 가능한 판단
새로운 관찰과 근거가 나타나면 평가를 다시 검토하는 태도.

한 걸음 더 읽기

한 사람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를 지워 보자. 특정 상황의 관찰이 얼마나 쉽게 그 사람 전체의 성격으로 바뀌는지 확인할 수 있다.

두 글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근거를 붙여 생각을 말하세요

이름 _____ 날짜 _____

질문 1

“말이 적다”와 “의욕이 없다”는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 본문 사례에서 관찰과 해석이 뒤섞인 부분을 설명하시오.

질문 2

학생을 분류하는 기준이 지원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와 낙인이 되는 경우를 각각 만들어 비교하시오. 차이를 만드는 조건 두 가지를 포함하시오.

질문 3

“한 번의 평가로 다음 모둠의 역할을 계속 고정한다”는 운영안을 검토하시오. 필요한 기록을 남기면서도 판단을 수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시오.

답변 점검 | 본문의 근거를 썼는가? · 다른 관점을 공정하게 다뤘는가? · 적용 조건을 밝혔는가?

보이지 않는 일이 멈춘 하루

읽기 글 · 학습용 창작 | 보상 · 사회적 필요 · 협상력

어떤 일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일이 덜 중요하다는 뜻일까?

가상의 공연장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 무대 위의 출연자들은 박수를 받았지만 관객 대부분은 조명을 점검한 사람과 통로를 청소한 사람의 이름을 몰랐다. 다음 날 장비 관리와 청소가 잠시 멈추자 공연장의 모습이 달라졌다. 작은 고장을 고칠 사람이 없었고 관객은 안전하게 이동하기 어려웠다. 무대에서 빛나는 일과 무대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 함께 있어야 공연이 열린다는 사실이 그제야 분명해졌다. 어떤 노동은 잘 이루어질 때 눈에 띄지 않고 멈췄을 때 비로소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은 왜 언제나 높은 보상을 받지는 않을까? 보상은 일의 필요성 한 가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 필요한 훈련, 비용을 지불하는 조직의 재정, 노동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힘 등 여러 조건이 작용할 수 있다. 어떤 서비스가 많은 사람에게 중요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소수만 할 수 있는 일은 제공 가능한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높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설명은 현재의 보상 차이가 모두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보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하는 질문과 어떻게 결정되어야 공정한지 묻는 질문은 다르다. 시장에서 책정된 가격을 곧바로 인간의 가치로 바꾸어 읽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의 기여와 존엄도 낮게 평가하게 된다. 그러나 직업의 보수는 사람 전체의 가치를 측정한 점수가 아니다. 또한 보수를 높이면 모두 해결된다고 보기 전에 업무 부담과 안전, 휴식,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조건도 살펴야 한다. 존중은 임금만의 문제도, 인사말만의 문제도 아니다.

공연장 운영진이 청소 노동자에게 감사장을 주면서도 쉬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존중의 말은 실제 생활과 멀어진다. 반대로 임금을 지급했으니 무례하게 대해도 된다는 태도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 계약에 따른 보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듣고,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안전과 휴식의 기준을 검토하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 감사의 표현은 이런 실천을 뒷받침할 때 의미가 깊어진다.

또한 어떤 일이 본래 착한 사람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돌봄이나 도움을 주는 일이 보람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활을 유지할 조건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누군가의 선의에만 의존하면 그 사람이 지치거나 떠났을 때 필요한 서비스도 불안정해진다. 사회적 필요가 큰 일일수록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 일이 중요하다. 보람을 강조하는 말이 부담을 감추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연을 소개하는 마지막 화면에는 출연자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한 사람들의 이름도 올라갔다. 이것은 모든 직무에 같은 보수를 주었다는 뜻도, 이름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도 아니다. 다만 무엇을 성과라고 부를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시작이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사람에게만 공을 돌리지 않고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한 협력과 조건을 살펴보자. 노동의 가치를 묻는 일은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 순위를 매기는 일이 아니라, 어떤 기여를 놓치고 어떤 조건을 고쳐야 하는지 찾는 일이다.

필요한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을까

앞의 글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어떤 조건을 새롭게 덧붙이는지 살펴보세요.

모든 일을 사회적 필요만으로 평가해 보수를 정하려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긴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고, 위험과 훈련 기간, 책임의 크기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모든 직무에 같은 보수를 주는 방식은 특정 능력을 배우려는 유인이나 무거운 책임을 맡을 이유를 약하게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보상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보상 차이를 설명하는 조건이 있다는 말이 어떤 수준의 차이도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보수나 안전을 해치는 조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직무마다 보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인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양립할 수 있다. 논의의 초점을 같은 금액을 줄 것인가에만 두기보다 차이를 만드는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었는지, 지속 가능한 조건을 마련했는지에 두는 것이 더 구체적이다.

개념을 정확하게

사회적 필요

어떤 활동이 사람들의 생활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정도.

협상력

업무의 대가와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힘.

설명과 정당화

차이가 생긴 원인을 설명하는 일과 그 차이가 옳다고 평가하는 일은 다르다.

한 걸음 더 읽기

“보수가 낮은 이유”를 말한 뒤 “따라서 낮아도 괜찮다”를 붙여 보자. 두 문장 사이에 어떤 가치 판단과 근거가 더 필요한지 찾아보자.

두 글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근거를 붙여 생각을 말하세요

이름 _____ 날짜 _____

질문 1

공연장 사례에서 잘 보이지 않던 노동이 드러난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의 가시성과 필요성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질문 2

보상의 차이가 생긴 원인을 설명하는 것과 그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두 글의 근거로 각각 예를 드시오.

질문 3

감사장 수여만 계획한 공연장에 실질적인 노동 존중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시오. 보수 이외의 조건을 하나 이상 포함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도 말하시오.

답변 점검 | 본문의 근거를 썼는가? · 다른 관점을 공정하게 다뤘는가? · 적용 조건을 밝혔는가?

갖고 싶은 것의 다음 페이지

읽기 글 · 학습용 창작 | 욕구 · 비교 · 충분함

새 물건이 필요한 것인지, 새 물건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필요한 것인지 물어 보자.

한 학생은 새 운동화를 사면 학교에 가는 기분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에 든 신발을 신고 나간 첫날에는 걸을 때마다 발끝을 내려다보았다. 며칠 뒤 친구가 다른 신제품을 신고 오자 자신의 신발은 갑자기 평범해 보였다. 신발의 기능이 나빠진 것도, 처음의 색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달라진 것은 비교의 대상이었다. 이 가상 사례는 소비가 단지 물건을 얻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는 경험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사람이 물건을 원하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비를 막을 우산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오래 준비한 목표를 이룬 기념으로 선물을 사고 싶을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 주는 과정은 관계의 기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를 모두 허영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필요한 물건은 생활의 어려움을 줄이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문제는 어떤 필요를 채우려는지 스스로 분명히 알지 못한 채 구매를 반복할 때 생길 수 있다. 물건이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을 물건으로 해결하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교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기준이 계속 바뀌면 만족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진 사람만 바라보면 이미 얻은 편리함과 즐거움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느낌에만 만족을 두면 누군가 더 좋은 것을 갖는 순간 그 만족의 근거가 약해진다. 그렇다고 비교를 완전히 없앨 수 있거나 없애야 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 비교가 내 선택을 돕는 정보인지, 끝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기준인지 돌아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질문이다.

충분하다는 판단에는 자신의 목적이 필요하다. 달리기에 편한 신발을 찾는 사람과 특정한 디자인을 즐기는 사람은 다른 기준으로 물건을 고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비싼 것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이라거나, 싼 것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일이다. 얼마나 자주 사용할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오래 써도 만족할지 같은 질문이 선택을 구체적으로 만든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가능성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가격표 밖의 시간과 관심 역시 한정된 자원이다.

한편 소비를 줄이라는 조언은 사람의 생활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꼭 필요한 것조차 부족한 사람에게 마음먹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어려움을 가릴 수 있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자원과 이미 충분한 물건을 계속 더하는 소비는 같은 문제가 아니다. 또한 물건을 적게 소유하는 생활을 새로운 우월함의 기준으로 만들면 다른 형태의 비교가 시작된다. 어떤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더 훌륭한지 경쟁하기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조건과 선택의 부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은 다음 물건을 사기 전에 갖고 싶은 이유를 적어 보기로 했다. 실제 기능이 필요한지, 오래 즐길 취향인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 걱정되는지를 구별해 보는 것이다. 이유가 섞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매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의 선택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행복을 물건과 완전히 분리할 수도 없지만, 모든 만족을 물건에 맡길 필요도 없다. 물건이 내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지, 아니면 물건을 비교하느라 생활의 다른 기쁨을 놓치는지 물을 때 소비는 더 의식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물건을 좋아하는 마음도 삶의 일부다

앞의 글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어떤 조건을 새롭게 덧붙이는지 살펴보세요.

소비를 성찰하자는 말이 물건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볍게 보는 태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누군가는 옷의 색을 조합하거나 음반을 모으면서 취향을 발견하고,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물건의 가치는 기능이나 사용 횟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상징과 추억, 아름다움도 선택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를 가장 적게 사는 행동으로만 정의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인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면서까지 타인의 인정을 좇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일이다. 즐거움을 위해 쓰는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낭비라고 단정하면 사람마다 다른 삶의 의미를 놓친다. 반대로 개인의 취향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선택의 결과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선택에 따르는 비용을 책임지는 태도는 함께할 수 있다. 절제는 즐거움을 없애는 명령보다 즐거움을 지속할 조건을 찾는 과정에 가까울 수 있다.

개념을 정확하게

상대적 비교
자신의 상태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선택지와 견주어 판단하는 것.

기회비용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

충분함
자신의 목적과 조건에 비추어 더 이상의 추가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상태.

한 걸음 더 읽기

“필요”와 “즐거움”을 서로 적으로 두지 말자.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소비, 취향을 즐기는 소비, 인정받기 위한 소비가 한 선택에 섞일 수 있다.

두 글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근거를 붙여 생각을 말하세요

이름 _____ 날짜 _____

질문 1

운동화의 기능이 그대로인데도 학생의 만족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물건의 변화와 비교 기준의 변화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질문 2

“즐거움을 위해 산 물건은 모두 낭비다”라는 주장을 두 글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자신의 판단에 필요한 조건을 덧붙이시오.

질문 3

가상의 인물이 한 달 용돈으로 공연 관람과 새 가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을 대신 내려 주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도울 질문 세 가지를 만드시오.

답변 점검 | 본문의 근거를 썼는가? · 다른 관점을 공정하게 다뤘는가? · 적용 조건을 밝혔는가?

아직 모른다는 말의 힘

읽기 글 · 학습용 창작 | 증거 · 잠정성 · 판단의 수정

설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지식이 약하다는 뜻일까,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일까?

학생들이 교실의 두 장소에서 식물을 길렀다. 창가에 둔 화분이 더 잘 자라자 빛이 많아서 그렇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창가 화분에는 물을 주기 쉬워 물의 양도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처음의 설명이 반드시 틀렸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가능성을 살펴야 했다. 학생들은 같은 양의 물을 주면서 장소만 달리해 다시 관찰하기로 했다. 이때 결론을 미룬 태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포기가 아니라,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만드는 선택이었다.

과학적 설명은 관찰과 실험 등으로 얻은 증거를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다.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어떤 자료에 근거했는지, 같은 조건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지, 다른 설명보다 무엇을 더 잘 설명하는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번의 성공적인 사례가 모든 상황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완벽한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가 충분한 설명과 근거가 거의 없는 주장을 같은 수준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확실하지 않다는 말 안에도 증거의 양과 질에 따른 차이가 있다.

지식이 수정될 수 있다는 특징을 잠정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잠정적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바꾼다는 뜻이 아니다. 새로운 자료가 이전 설명으로 잘 이해되지 않거나 더 넓은 범위를 설명하는 모형이 나왔을 때 판단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다. 수정의 이유와 과정을 공개하면 사람들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결론만 바꾸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혼란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 믿을 만한 설명은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뿐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고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지도 밝힌다.

실제 생활에서는 더 알아볼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가상의 야외 행사에서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예보가 완전히 확실하지 않다고 해 보자. 위험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과 모든 가능성 때문에 모든 활동을 영구히 중단하는 것은 모두 부담을 낳을 수 있다. 판단에는 발생 가능성뿐 아니라 피해가 생겼을 때의 크기, 예방에 드는 비용, 결정을 되돌릴 수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불확실성은 행동을 멈추게 하는 이유만이 아니라 대비의 수준을 정하는 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 일은 중요하지만 이름이나 직함만으로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어떤 분야의 판단인지, 근거가 공개되어 있는지, 다른 검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도 어느 쪽이 더 자신 있게 말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쟁점이 자료 부족인지, 해석 차이인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차이인지 구분할 수 있다. 사실에 관한 판단과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서로 연결되지만 완전히 같은 질문은 아니다.

식물을 관찰하던 학생들은 보고서에 빛이 성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적고, 물의 양을 통제하지 못한 한계도 함께 적었다. 이는 실험의 가치를 없애는 고백이 아니다. 다음 사람이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알려 주는 정보다. 좋은 판단은 확신을 크게 말하는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증거가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구별하고, 추가 자료가 들어왔을 때 결론을 바꿀 조건을 제시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아직 모른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지 더 정확하게 묻게 된다.

불확실성의 설명에도 책임이 있다

앞의 글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어떤 조건을 새롭게 덧붙이는지 살펴보세요.

아직 모른다는 설명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문장에 한계만 붙이면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할지 알기 어렵다. 전문가가 가능성들을 길게 나열하고 현재 가장 뒷받침되는 판단을 말하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의 부담이 듣는 사람에게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근거의 강약을 구분하고 가능한 선택의 결과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전달할 때에는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남아 있는 의문, 판단을 바꿀 조건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신중함이 언제나 결정을 늦추는 태도를 뜻하지는 않는다. 잠정적으로 행동하되 관찰을 계속하고 수정 가능한 조치를 먼저 취할 수도 있다. 다만 결정을 돕기 위해 증거보다 강한 확신을 보여 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명료함과 과장은 다르다. 좋은 설명은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판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개념을 정확하게

증거의 강도

자료의 양뿐 아니라 수집 방식·일관성·다른 설명을 배제하는 정도를 함께 본 신뢰 수준.

잠정성

새로운 근거에 따라 설명을 수정할 수 있다는 성격. 아무 주장이나 같다는 뜻은 아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결정

추가 정보가 나왔을 때 큰 손실 없이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선택.

한 걸음 더 읽기

실제 자료: 바버라 매클린톡은 이동성 유전 요소의 발견으로 198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S2] 과학의 설명 범위를 넓힌 연구 사례다. 이 사실만으로 통설에 반대하는 모든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본문의 식물 관찰은 별도의 창작 사례다.

두 글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근거를 붙여 생각을 말하세요

이름 _____ 날짜 _____

질문 1

식물 관찰에서 빛의 영향만으로 성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관찰에서 바꿀 조건과 같게 유지할 조건을 구분하시오.

질문 2

“과학의 설명은 바뀌므로 어떤 주장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두 글의 근거로 평가하시오. 잠정성과 근거 없는 주장을 구분하시오.

질문 3

가상의 야외 행사에서 바람에 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 특정 행동을 단정하기보다 결정에 필요한 정보, 임시 조치, 결정을 바꿀 조건을 각각 제안하시오.

답변 점검 | 본문의 근거를 썼는가? · 다른 관점을 공정하게 다뤘는가? · 적용 조건을 밝혔는가?

작품의 주인은 누구일까

읽기 글 · 학습용 창작 | 창작 의도 · 작품의 근거 · 해석

작가의 설명을 알게 된 순간, 독자가 느낀 의미는 사라져야 할까?

학교 전시에서 한 학생이 빈 의자를 그린 그림을 걸었다. 한 관람객은 떠난 사람을 기다리는 장면이라고 했고, 다른 관람객은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을 그린 학생은 조용히 혼자 쉬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선 두 해석은 모두 틀린 것일까? 같은 작품을 보고도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경험은 흔하지만, 그 차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간단하지 않다. 작가가 만들었다는 사실과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읽힌다는 사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작 의도는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다. 작가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표현하려 했는지 알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자신이 만든 모든 요소의 의미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 독자는 다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의 새로운 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작품이 공개된 뒤에는 작가의 말뿐 아니라 화면의 구성이나 문장의 선택 자체도 해석의 근거가 된다. 작가의 설명을 존중하는 일과 그 설명만을 유일한 답으로 삼는 일은 다르다.

그렇다고 어떤 해석이든 모두 같은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빈 의자를 그렸다는 사실만으로 그림이 반드시 전쟁을 찬양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연결을 설명할 근거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떠오른 기억을 말하는 일과 작품 자체가 어떤 의미를 만든다고 설명하는 일은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자신의 반응을 보여 주고, 후자는 다른 사람도 검토할 수 있는 이유를 요구한다. 작품 속 색과 위치, 반복되는 표현, 제목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해석 가운데 무엇이 더 많은 요소를 일관되게 설명하는지 논의할 수 있다.

짧은 창작 문장을 읽어 보자. “문을 닫자 바람은 멎었다. 방 안의 종이는 더는 날리지 않았다. 나는 한참 뒤에야 문밖의 나무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독자는 안정감을 얻는 대신 바깥과의 연결을 잃는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다른 독자는 집중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고요함을 뒤늦게 돌아보는 장면으로 읽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문을 닫은 변화와 마지막의 깨달음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단어 하나만 떼어 자신의 생각을 붙이는 것보다 문장들의 관계를 살피는 해석이 더 검토하기 쉽다.

작품의 맥락도 해석에 영향을 준다. 같은 의자가 생활 공간에 놓일 때와 전시장에 놓일 때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다. 제목이나 배치가 물건을 보는 방식을 바꾸기도 한다. 그러나 맥락이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작품을 보지 않고 작가의 이력이나 유명세만으로 의미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작품을 직접 관찰한 내용과 바깥에서 얻은 정보를 오가며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명한 해설과 다르게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해석의 우수함을 증명하지도 않는다.

예술을 함께 읽는 대화는 정답이 없다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각자가 무엇을 보았고 왜 그렇게 읽었는지 설명할 때 작품은 더 풍부하게 드러난다. 내 해석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를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판단을 바꿀 수도 있다. 처음의 그림 앞에서 작가와 관람객이 서로의 설명을 듣는 일은 작품의 소유권을 다투는 일이 아니다. 창작자의 의도와 작품의 표현, 감상자의 경험이 어디에서 만나고 갈라지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해석의 자유는 근거에서 벗어나는 자유보다 근거를 새롭게 연결하고 다른 사람과 검토할 수 있는 자유에 가까울 수 있다.

작가의 의도를 너무 쉽게 밀어내서는 안 된다

앞의 글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어떤 조건을 새롭게 덧붙이는지 살펴보세요.

독자의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더라도 작가의 설명은 다른 정보와 똑같이 취급하기 어려운 중요한 단서다. 특히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작품에서 그 맥락을 지우면 작품이 전하려던 문제를 놓칠 수 있다. 감상자가 자신의 경험만 앞세우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역사적 의미가 개인적인 느낌의 배경으로 소비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작품을 자유롭게 읽는다는 말에는 작품과 창작 맥락을 충분히 살필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한다. 그렇다고 작가의 발언 하나로 모든 해석을 닫을 필요는 없다. 창작 과정에서 드러난 의도와 작품에 실제로 나타난 표현이 긴장할 수도 있고, 독자가 미처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다. 작가의 의도를 우선 검토하되 작품의 구체적 요소와 대조하고, 다른 해석이 가능한 이유도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해석의 다양성은 근거를 적게 요구하는 구실이 아니라 더 세심하게 읽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

개념을 정확하게

창작 의도

작가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거나 이루려 한 목적. 중요한 해석 단서다.

작품 내적 근거

문장·구성·색·배치 등 작품 자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요소.

해석의 설득력

여러 요소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이 그 근거를 검토할 수 있는 정도.

한 걸음 더 읽기

실제 자료: 뒤샹의 「샘」은 일상용품을 작품으로 제시한 레디메이드 사례다. SFMOMA는 이 작품을 미술의 제작과 전시에 대한 기존 생각에 도전한 작업으로 설명한다. 소장품은 1964년 제작 버전이다. [S3] 본문의 그림·짧은 문장은 별도의 창작이다.

두 글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근거를 붙여 생각을 말하세요

이름 _____ 날짜 _____

질문 1

빈 의자 그림에 대한 관람객의 해석이 작가의 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있는가? 의도와 작품의 근거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질문 2

본문의 “문을 닫자”로 시작하는 창작 문장을 해석하시오. 문장 속 두 요소를 근거로 들고, 자신의 해석에 대한 가능한 반론도 하나 제시하시오.

질문 3

전시 해설판에 작가의 설명과 관람객의 해석을 함께 실으려 한다. 근거가 있는 해석을 고르는 기준 두 가지와 작성 원칙 한 가지를 제안하시오.

답변 점검 | 본문의 근거를 썼는가? · 다른 관점을 공정하게 다뤘는가? · 적용 조건을 밝혔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

읽기 글 · 학습용 창작 | 방관 · 위험 · 연대

침묵의 의미는 입을 열었는지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

가상의 모둠 대화방에서 한 학생을 놀리는 말이 이어졌다. 어떤 학생은 웃는 표시를 남겼고, 어떤 학생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문제가 알려지자 침묵했던 학생은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놀림을 당한 학생은 누구도 멈추자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같은 침묵이 한 사람에게는 가담하지 않은 표시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혼자 남겨졌다는 경험이었다. 말하지 않는 행동도 관계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렇다고 침묵을 모두 동의나 비겁함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판단을 미뤘을 수도 있고, 자신까지 공격받을까 두려웠을 수도 있다. 즉시 대응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나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침묵의 이유를 살피지 않은 채 사람의 성격을 판정하면 실제로 도움이 될 방법을 찾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침묵이 어떤 효과를 남겼는지와 그 상황에서 가능한 다른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일이다.

용기를 가장 큰 목소리로 맞서는 행동이라고만 생각하면 선택의 범위가 좁아진다.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대립하는 것보다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따로 괜찮은지 묻거나, 안전한 방식으로 사실을 전달하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개적인 말과 조용한 행동은 반드시 반대가 아니다. 반대로 마음속으로만 반대했으니 충분하다고 여기면 실제 관계에는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함께 고려하여 가능한 행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의 책임은 사람마다 가진 힘과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대화방을 관리하는 학생과 초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이 같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누구나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맞서야 한다고 요구하면 위험이 큰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은 상황을 멈추고 안전하게 말할 통로를 마련할 책임도 더 클 수 있다. 개인의 용기를 칭찬하는 일과 공동체가 행동하기 쉬운 조건을 만드는 일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나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사를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데 공개적으로 사정을 알리면 관심이 커지는 만큼 부담도 커질 수 있다.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묻고, 급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할 수 있다. 상대를 보호하겠다는 의도와 상대가 실제로 경험하는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도움은 대신 주인공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안전하게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다음 주 대화방에는 불편한 말이 나오면 잠시 멈추고 확인하자는 약속이 생겼다. 혼자 말하기 어려울 때 알릴 수 있는 통로도 마련했다. 약속만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가담하거나 침묵하는 두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행동을 돌아보는 시작이 될 수 있지만 언제나 책임의 끝은 아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 감수해야 했던 위험, 실제로 할 수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묻고 다음에는 무엇을 할지 생각할 때 침묵에 대한 성찰은 가능한 행동으로 이어진다.

침묵할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앞의 글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어떤 조건을 새롭게 덧붙이는지 살펴보세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분위기는 또 다른 강요가 될 수 있다. 충분한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 즉시 찬반을 밝히라고 하거나,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침묵을 단순히 비난하는 문화에서는 사람들은 진심보다 주변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말할 책임을 논의할 때에는 말하지 않을 권리와 안전한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을 권리가 다른 사람의 피해에 어떤 방식으로도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거나 필요한 도움을 조용히 제공할 수 있다.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는 자신의 권한과 위험, 당사자의 의사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 용기는 모두에게 같은 모습을 요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조건에서 가능한 책임 있는 행동을 찾는 질문이 될 수 있다.

개념을 정확하게

방관
문제 상황을 알고도 개입하지 않는 태도. 가능한 행동과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연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대응하려는 관계와 행동.

안전한 발언 조건
불이익과 보복의 위험을 줄이고 문제를 알릴 수 있도록 마련한 통로와 보호.

한 걸음 더 읽기

실제 자료: 로자 파크스는 1955년 12월 1일 몽고메리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라는 요구에 저항하다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버스 보이콧의 계기가 되었다. NPS는 그의 행동을 오랜 활동의 연장선으로 설명한다. [S4] 개인의 행동과 함께 이를 지속시킨 집단적 대응도 살펴볼 수 있다.

두 글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근거를 붙여 생각을 말하세요

이름 _____ 날짜 _____

질문 1

대화방에서 침묵했던 학생과 놀림을 당한 학생이 침묵을 다르게 이해한 이유는 무엇인가? 의도와 관계 속 효과를 구분하시오.

질문 2

“침묵은 언제나 동의다”와 “말하지 않았으면 책임도 없다”를 각각 평가하시오. 두 글의 근거와 적용 조건을 포함하시오.

질문 3

누구에게나 공개적인 맞대응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줄이는 공동체의 대응 원칙 세 가지를 제안하시오. 권한의 차이와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고려하시오.

답변 점검 | 본문의 근거를 썼는가? · 다른 관점을 공정하게 다뤘는가? · 적용 조건을 밝혔는가?

질문을 이어 가는 방법 1 / 3

입장의 일치보다 근거·개념·조건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피드백하세요.

01 선의와 결과

의도·결과·예측 가능성을 서로 다른 판단 근거로 구분하는지 살핀다. 준비가 부족했다고 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선의가 있었다고 피해를 무시하는 답변을 다시 묻는다. 발표 자료 사례에서는 수정 전의 동의와 수정 후의 회복 방안을 함께 말할 수 있다.

추가 질문 같은 잘못이라도 초보자와 경험 많은 사람의 책임은 같아야 할까?

02 다수결과 소수 의견

다수결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 적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본다. 권리 침해와 단순한 선호 차이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회의 원칙에는 사전 정보, 발언 기회, 마감, 이의 제기, 시행 후 수정 중 서로 다른 단계가 포함되면 좋다.

추가 질문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필요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면 공정한 결정일까?

03 처벌과 회복

처벌을 없애야 한다거나 강하게 처벌하면 모두 해결된다는 이분법을 피하는지 본다. 피해자의 용서와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구분한다. 회복 방안에서 직접 대면을 강제하지 않고 자료 복구·보호·재발 방지를 제시할 수 있다.

추가 질문 피해자가 대화를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04 기억과 역사

사실의 차이와 경험·평가의 차이를 구분하는지 확인한다. “모든 기억은 주관적이므로 다 맞다” 또는 “공식 문서만 진실이다”라는 결론을 경계한다. 새 제목은 반대 방향의 단정으로 바꾸기보다 복수의 경험과 확인된 사실을 담도록 지도한다.

추가 질문 기록에 없는 사람의 경험을 조사하려면 어떤 질문부터 해야 할까?

교사가 먼저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어느 문장에 근거했니?”,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까?”, “어떤 조건에서는 결론이 달라질까?”를 차례로 물어보세요.

질문을 이어 가는 방법 2 / 3

입장의 일치보다 근거·개념·조건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피드백하세요.

05 정상과 낙인

흔함과 바람직함, 관찰과 해석을 구별하는지 살핀다. 학생에게 실제 진단이나 개인의 민감한 사정을 밝히게 하지 않는다. 기준의 목적·공개 범위·재평가 기회를 통해 분류의 도움과 위험을 함께 설명하도록 한다.

추가 질문 칭찬처럼 들리는 이름도 사람의 새로운 선택을 제한할 수 있을까?

06 노동과 존중

특정 직업에 대한 높고 낮은 평가 대신 보상에 작용하는 조건을 설명하게 한다. 동일 보수만을 유일한 공정으로 보거나 시장 보수만으로 존엄을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휴식·안전·의견 반영처럼 구체적인 제안을 인정한다.

추가 질문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요구할 수 있을까?

07 소비와 행복

물질을 멀리해야만 행복하다는 단정과 무엇이든 취향이면 정당하다는 단정을 함께 경계한다. 질문 만들기에서는 사용 목적·비용·대안·지속적 만족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학생에게 실제 가정 형편이나 소비 금액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추가 질문 물건을 적게 가진다는 사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수업 후 기록 · 학생이 발견한 새로운 근거

질문을 이어 가는 방법 3 / 3

입장의 일치보다 근거·개념·조건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피드백하세요.

08 과학과 불확실성

물의 양과 빛의 조건을 구분하는지 확인한다. 지식 수정 가능성을 모든 설명의 동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한다. 행사 답변에서는 피해 크기·대비 비용·관찰·수정 가능성을 논증하는지 평가하며 실제 안전 지침의 정답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추가 질문 불확실하다는 말을 가장 자신 있게 하는 사람도 틀릴 수 있을까?

09 예술과 해석

개인적 연상과 작품을 설명하는 해석을 구분하는지 본다. 창작 문장에서는 종이가 안정되는 변화와 나무가 보이지 않는 변화의 관계가 핵심 근거다. 다른 해석을 인정하되 해당 표현을 설명하는지 묻고, 작가 의도를 무시하거나 절대화하지 않도록 한다.

추가 질문 작가가 작품에 표현되지 않은 의도를 설명한다면 어떻게 판단할까?

10 침묵과 용기

침묵을 무조건 비난하거나 무조건 면책하는 답변을 구체적인 조건으로 돌려 질문한다. 안전한 도움 요청과 당사자 의사 확인을 인정한다. 실제 피해 경험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말고 가상 사례 안에서 토론한다. 역사적 사례를 따라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추가 질문 문제에 개입할 권한이 더 큰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이 더 생길까?

수업 후 기록 · 학생이 발견한 새로운 근거

실제 사례를 확인하는 곳

확인일 2026. 10. 10. | 파란색 링크를 누르면 원자료로 이동합니다.

[S1] 미국 의회도서관 · Civil Rights History Project

4회 '기억과 역사'의 실제 사례. 의회도서관과 스미스소니언이 민권운동 참여자의 인터뷰를 수집·공개하는 프로젝트의 설명을 참고했습니다. 시장 사례는 해당 자료를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공개 자료 열기

[S2] NobelPrize.org · 1983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8회 '과학과 불확실성'의 실제 사례. 바버라 매클린톡의 수상 연도와 이동성 유전 요소 발견이라는 수상 공적을 확인했습니다. 식물 실험은 학습용 창작입니다.

공개 자료 열기

[S3] SFMOMA · Marcel Duchamp, Fountain, 1917/1964

9회 '예술과 해석'의 실제 사례. 레디메이드와 기존 미술 관념에 대한 질문, 소장품의 제작 버전에 관한 설명을 참고했습니다. 작품 이미지는 재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공개 자료 열기

[S4]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PS) · Rosa Parks

10회 '침묵과 용기'의 실제 사례. 1955년 12월 1일 체포, 버스 보이콧의 계기, 이전부터 이어진 활동의 맥락을 확인했습니다. 대화방 사례와는 별개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공개 자료 열기

창작 자료 안내

본문 10편, 다른 관점 10편, 짧은 문학적 문장과 일상 사례는 모두 이 교재를 위해 새로 작성했습니다. 기존 문학 작품이나 실제 기출 제시문으로 소개하지 마세요. 개념 설명과 토론 질문은 학습을 위한 편집이며, 출처 기관이 제시한 공식 해설이나 답안이 아닙니다.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